답사기 02-03
히로시마 건축물 탐방 ③ _ 시모세미술관과 히로시마니시소방서

전북 지역 뉴스 04-0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역건축사회, 제37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와 노인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지역건축사회, 완주군에 '성금 300만원' 기부

광주 지역 뉴스 06-07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59회 정기총회 성료
'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에서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에게 공로패 수여
(사)한국건축정책학회 이사로 광주건축사회 이창율, 정원 건축사 선임

전남 지역 뉴스 08-09
전라남도건축사회, 제59회 정기총회 개최
전라남도,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
전라남도,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워크숍 개최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답사기 10
대구 간송미술관, 리안갤러리, 삼성창조캠퍼스를 다녀와서...

인터뷰 11
지속성과 진정성, 올림의 건축 철학을 말하다 _ 강이건 건축사 (전북)

독자광장 12
책 소개 _ 의성어 의태어 건축
한 편의 시 _ 내 마음은 바다
한 장의 사진 _ 간월암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수상작 13-14
2024년 최우수상(민간 부문) '스의집'
2024년 최우수상(공공 부문) '순천시 신대도서관'
2024년 우수상(민간 부문) '경계의 집'
2023년 우수상(민간 부문) '포트 앤 포트'
2022년 최우수상(민간 부문) '회덕현'
2022년 우수상(민간 부문) '인문학정원 귀소헌'

건 축 문 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5.4.185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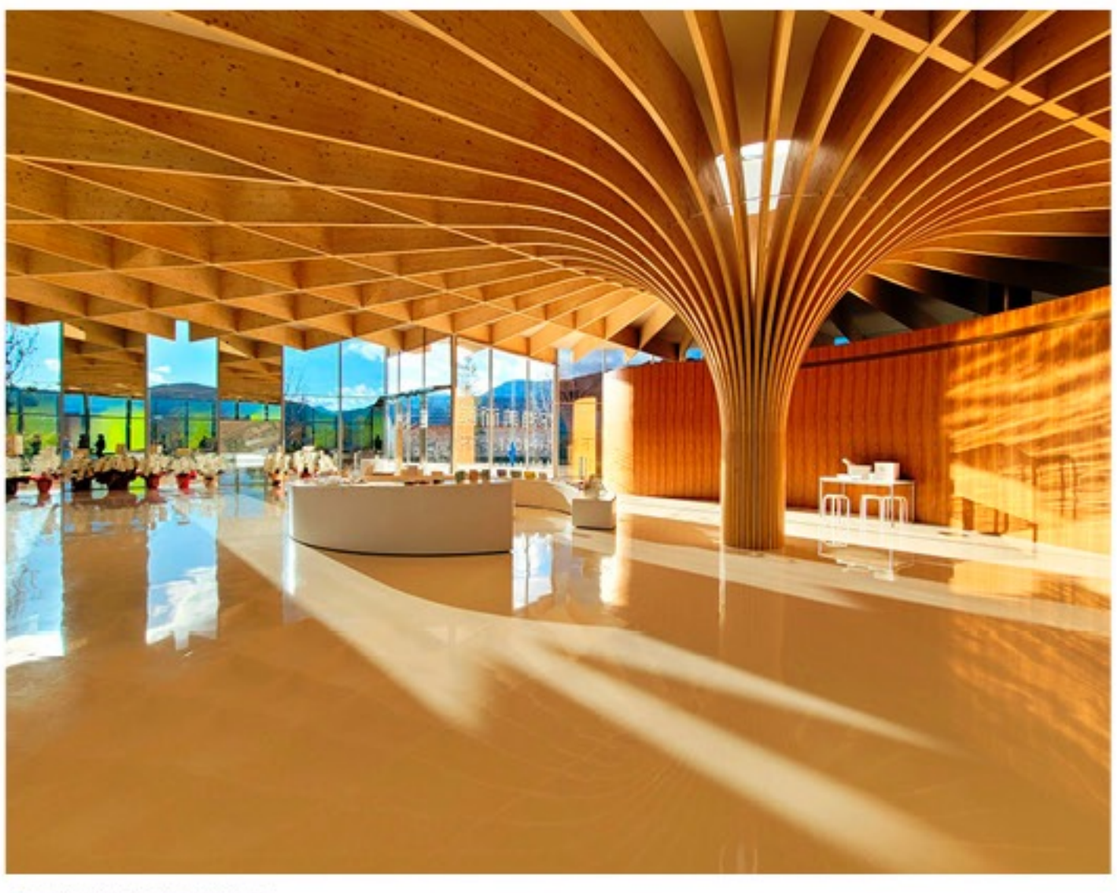
히로시마 건축물 탐방 ③ _ 시모세미술관과 히로시마니시소방서

이동희 교수 /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시모세미술관 엔트런스동

시모세미술관 가동전시실

시모세미술관 거울의 숲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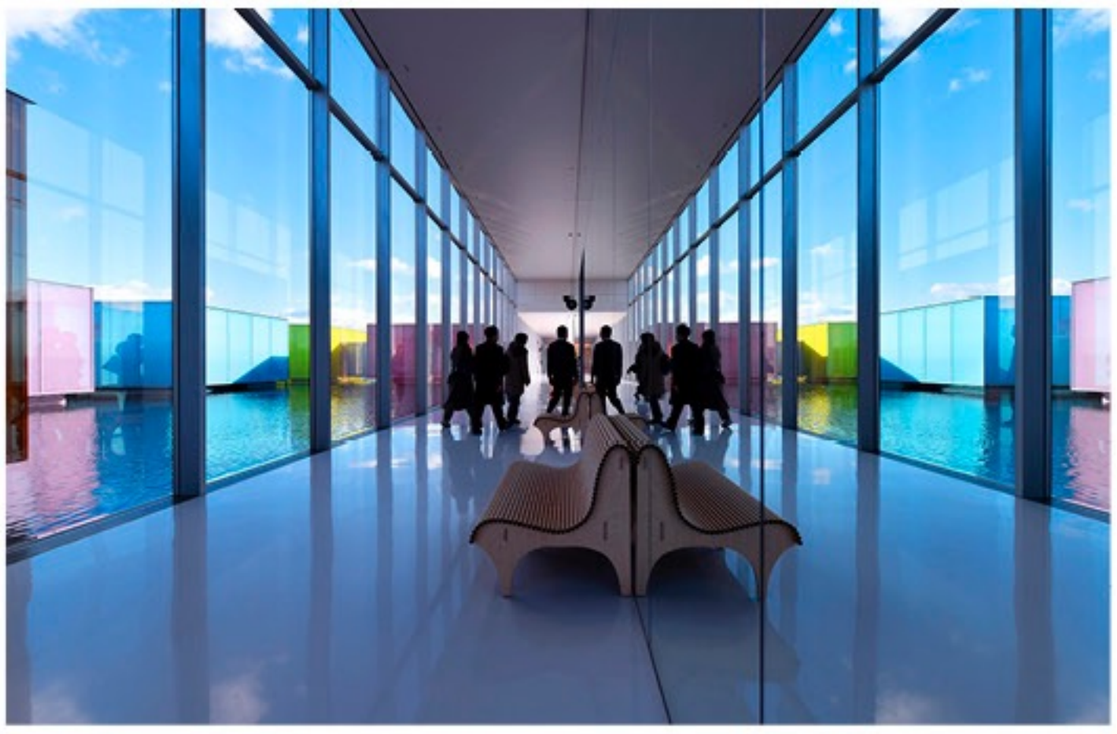


시모세미술관 엔트런스홀

'뿌, 뿌뿌' 오후 한 시 기차가 미끄러지듯 미야지마구치역(宮島驛) 플랫폼으로 들어온다. 좌석에 앉아 왼쪽으로 펼쳐진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12분쯤 지나니 쿠바역(玖波驛) 도착.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8분 정도 달리니 독창적인 건축물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일본 히로시마현(広島県) 오타케시(大竹市)에 위치한 시모세미술관(下瀬美術館, 2023). 좌우로 둥글게 말린 벽체가 온통 유리, 아니 거울로 마감되어 있어 주변 풍경과 푸른 하늘이 그대로 담겨 있다. 어디까지가 건물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니 거대한 벽체 하나가 타원형 건물을 가로지르고, 그것을 넘어서니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건축물들이 눈앞에 나타난다. 연한 색깔의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상자 여덟 개가 물에 떠 있는 모습….

시모세미술관은 히로시마시에 본사를 둔 건축자재회사인 마루이산업(丸井産業)이 창업 60주년을 기념해 구상한 것으로서, 시모세 유미코(下瀬ゆみ子) 대표가 2대에 걸쳐 수집해 온 일본 인형, 프랑스 공예, 동서양 회화 컬렉션 약 500점을 보존 및 공개하기 위해 건립했다. 건축설계는 2014년 프리츠커상 수상 건축가인 반 시게루(坂茂, 1957~)가 맡았고, 공사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건축물이 완공된 후 바로 개관하였다. 미야지마(宮島) 섬과 세토나이(瀬戸内)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부지에 엔트런스(진입동), 미술관, 빌라, 레스토랑, 정원 등을 조성해, 건축물은 물론 미술과 공예와 음식과 자연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각 건축물을 연결하는 길이 180m, 높이 8.5m의 거대한 거울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벽체가 인상적이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늘과 바다 빛깔이 외벽에 그대로 투영되어 자연과 인공의 경계가 사라진 느낌을 받는다.

또한 세토나이 바다의 섬들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인공연못(手盤) 위에 가로세로 10m 길이의 상자형 가동전시실(Movable Galleries)을 여덟 개 설치하고, 그 사이를 반투명 벽체의 좁은 다리로 연결한 창의적인 설계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인공연못에 펌프로 60cm 정도 물을 채우면 전시실이 부유하여 인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전시 기획에 따라 여러 조합으로 배치를 달리할 수도 있다. 접수처와 카페 등이 있는 엔트런스 공간을 지나 기획전시실로 가는 통로의 유리창, 또는 '거울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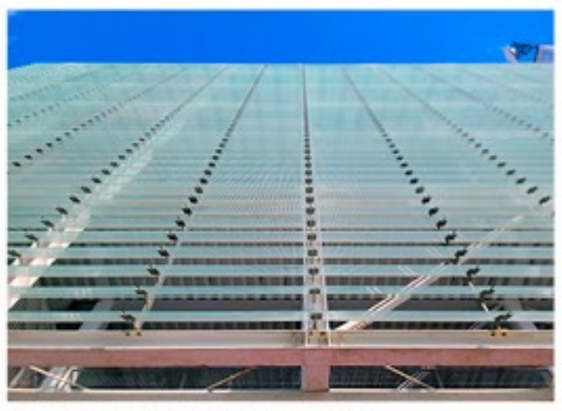
시모세미술관 엔트런스홀 쪽에서 바라본 통로

히로시마니시소방서 낮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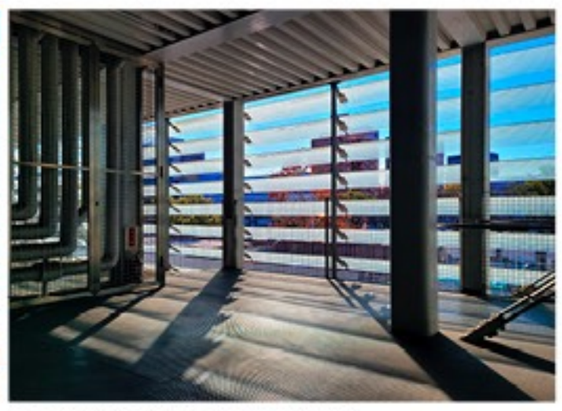
히로시마니시소방서 밤 풍경

시모세미술관 현관 부분

시모세미술관 가동전시실 내부



히로시마니시소방서 외벽 유리 루버



히로시마니시소방서 기둥과 배관

으로부터 이어지는 출입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면, 이 미술관의 미학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환상적인 장면과 만날 수 있다. 프랑스 유리공예가 에밀 갈레(Emile Galle, 1846~1904) 작품의 꽃 색깔에서 따온 다양한 색깔의 가동전시실 외벽이 주변 풍경을 오롯이 담아내고, 그것이 수면에 거꾸로 비추어서 아름다운 기하학적 무늬가 만들어지는…. 그동안 반 시게루의 설계 작품에서는 주로 나무나 종이 관만을 의식했었는데 이번에 뜻밖의 체험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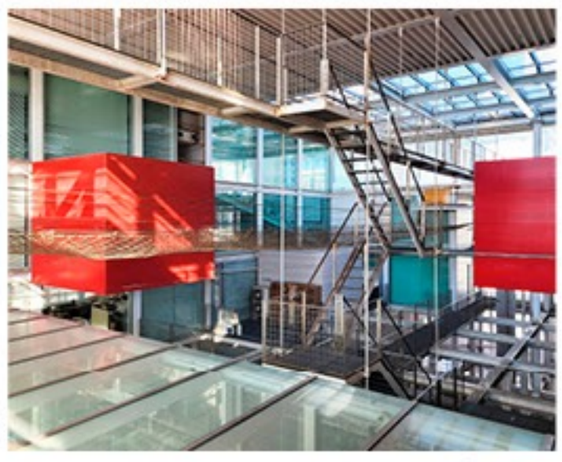
오늘 아침 시모세미술관으로 오기 위해 히로시마 시내에서 노면전차를 타게 되었는데, 바로 그 탑승역(西観音町駅) 근처에서 몸체에 작은 유리 날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특이한 건축물을 만났다. 히로시마니시소방서(広島西消防署, 2000). 2024년 프리츠커상 수상 건축가인 야마모토 리켄(山本理顕, 1945~)이 설계한 것이다. 외관은 지상 8층 규모의 격자형 철골 프레임에 여기저기 붉은 상자가 박혀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바깥 도로에서 안쪽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개방적인 구조로서, 밤이 되면 밝은 불빛이 새어 나와 사람들이 '파친코(Pachinko)' 건물로 착각할 때도 있다. 건축가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밝고 개방적인 소방서, 주변에 안심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소방서를 계획했다고 한다. 즉, 언제든지 시민들이 놀러 와 여러 가지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고, 빈틈없이 일하는 소방관들의 업무 모습에서 안심감을 얻을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그 노고를 알게 되는 건축물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1층 입구 접수대에서 허가를 받아 명찰을 착용한 후, 4층의 전시 로비와 견학 테라스까지 둘러보기로 했다. 1층은 소방차의 출입과 주차를 위해 층고를 한껏 높이고, 2층에 인공지반을 설치해 그 위에 건물을 앉힌 구조이다. 건축물 중앙부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탁 트인 아트리움이 조성돼 있고, 그것을 둘러싼 형태로 상하좌우에 소방업무에 필요한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바깥쪽 가장자리에는 공간을 순회하거나 각층을 연결하는 복도가 마련되어 있다. 높이 15m의 아트리움은 소방대원들이 낙하 훈련이나 횡단 훈련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소방서 실내 전체를 조망하거나 외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4층의 전시 로비는 바닥이 강화유리로 마감되어 있고, 그 속에 1960~70년대 사용하던 헬멧, 소방복 등이 전시되어 있다.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특히 좋아하는 장소라고 한다. 전시 로비에서 견학 테라스로 나가면 소방대원들의 다양한 훈련 모습, 사무실 업무 풍경, 구급교육센터에서의 실습 과정 등을 구경할 수 있다.

건축물 내부를 연결하는 복도와 계단은 피난을 위해 옥외 배치 형식으로 만들었다. 바닥에는 타공 철제 판을 조밀하게 깔았으며, 벽체에는 보호가 필요한 높이까지 철망을 설치했다. 그리고 철골조 기둥 바깥면에는 총 2,400장의 유리 루버를 붙이고, 그 각도를 개구율 50%가 되도록 조정해 놓았다. 유리면에는 세로줄을 촘촘하게 인쇄해 놓아, 마치 발을 친 듯 부드러운 햇빛이 실내로 유입되고 있다. 1층에서 4층까지 한 칸 한 칸 계단을 밟고 올라가 길게 이어진 복도를 산책하듯 걸어본다. 층마다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이고, 서장실 내부도 훤히 들여다보인다. 모든 공간이 밝고 투명하게 느껴진다. 소방서 밖으로 나와서 골조와 배관이 그대로 드러난 외관을 다시 바라보니, 문득 재작년 방문했던 파리의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 1977)가 생각났다. 거기도 형형색색의 철골 구조물, 배관들, 통풍구들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전면부 벽체가 온통 유리로 마감되어 있었다. 두 개 모두 솔직한 건축물이다.

건축물은 "지역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는 장치로서, 또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완성해 나가는 존재"로서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현장으로서, 교육의 현장으로서 부수적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소방관들이 매일 같이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을 안내하며, 자신들의 업무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일상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방서가 지역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방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히로시마니시소방서를 둘러보면서, 지난해 광주에서 야마모토 리켄 건축가를 만나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나누었던 얘기가 새삼 떠오른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단절된 프라이버시보다 연결된 커뮤니티가 더 중요하다."라던….

히로시마니시소방서 복도



히로시마니시소방서 견학 테라스와 아트리움

히로시마니시소방서 전시 로비 어린이 그림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과 필자

유토피아(우리가족의 지상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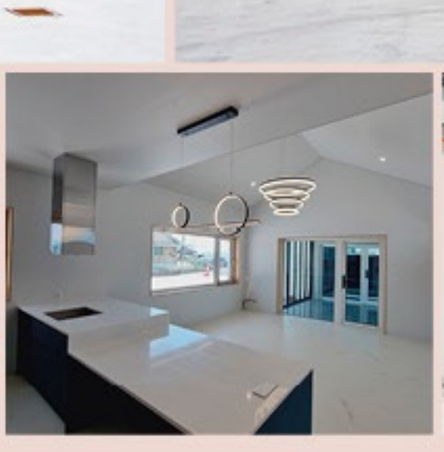
김우철 건축사 / 예감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5길 10, 2층 / Tel. 063-288-9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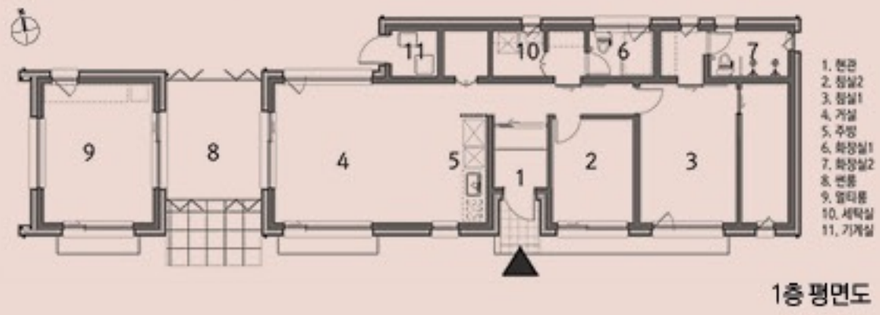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5-10 / 대지면적 : 736㎡ / 건축면적 : 149.83㎡ / 연면적 : 149.83㎡ / 건폐율 : 20.36%
용적률 : 20.36%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스타코플렉스, 징크

"유토피아의 배치에서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다. 주택은 주변의 논과 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자연의 일부분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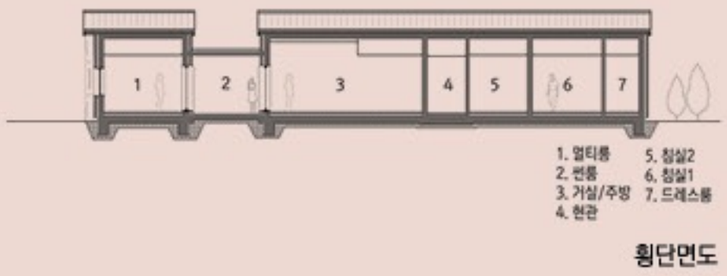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방향으로 창을 배치하여,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집 안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용성을 고려해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넓은 주차 공간을 배치했으며, 가족의 일상적 필요를 고려해 강아지의 운동 공간과 세차 공간을 마당에 마련했다.

특히 마당은 건축주의 스케이트 보드 취미를 담으면서도 유지보수가 용이한 콘크리트 마감을 적용하여 일상적 관리의 부담을 덜었다."





1층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발주처, 건축주
건물유지보수 절감(내부식성)
철근대비 초기균열 ⅓감소
탄소배출량 45% 저감
자재비 절감
녹색건축물 가산점혜택

시공사
중대재해 예방(낙하, 감전)
철근 대비 ¼ 중량
획기적인 작업효율 향상
시공비용 절감(인건비, 장비비)
물류비절감(철근대비 60% 절감)

건축사
조달청 우수, 혁신제품 지정
친환경자재 인증(EPD)
품질 인증(K마크 Q마크인증)
고강도, 경량성, 내부식성, 비전도성자재
사회구성원보호(경량자재)

근로자
근골격 질환 예방(경량자재)
작업 피로도 감소(열차단성)
사회적 소외층 일자리창출
여성, 고령자 작업 가능

"조달청 우수/혁신 제품 지정"(국토부 핵심전략산업 선정)
• 국토교통부, 국가인증센터 GFRP 철근 설계, 시공 국가건설기준 KDS, KCS 등재(2024.01.)
• 한국도로공사 GFRP 철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공장, 물류창고, 주차장, 축사, 염분 많은 바닷가, 지하 건축물 최적화
• 초기 투자 20%, 건물 유지보수 52% 절감(한국도로공사 데이터)

통영 스타벅스

함팽 경서중공업 공장

교각 기초부 절곡근 적용

KECO 호남 총판점
광 주 권 061-371-1233
전 북 063-223-8800
서부 목포 010-3638-1882
동부 여수 010-2925-7777
제 주 도 010-2981-4444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역건축사회, 제37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 20일, 그랜드힐스턴호텔 5층에서...

(사진 = 전주지역건축사회 제공)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광성)는 지난달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북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과 전주시의회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 전주시 국승철 건설안전국장 등 내·외빈과 회원 13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2024년 수지결산 및 2025년 회비수납기준과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승인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단합에 기여한 이광재 회원에게는 전북자치도건축사회 공로상을, 건축문화 발전과 지역사회의 건축적 가치 향상에 기여한 강문수, 이동철, 이미양 건축사에게 전주시장 표창장을 시상했다.

또한, 전주시 도시건축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힘써 준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 이국 의원에게 전주지역건축사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광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요즘 시대 환경은 경제는 어렵고 모든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다. 그동안 우리는 잘 해왔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전주시 도시·건축문화 발전에 건축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와 노인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5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축 분야에 일자리 제공 등...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이윤자)가 11일 지역사회 내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공식화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내 5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축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각자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무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의 이성열 회장은 "노인 인력의 경험과 지혜가 건축 분야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의 이윤자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들이 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지역건축사회, 완주군에 '성금 300만원' 기부

제4대, 5대 회장 이·취임식 행사에서 전달...

(사진 = 완주지역건축사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지역건축사회가 지난달 26일 회장 이·취임식 행사에서 완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이성열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김선희 회장(SM 건축사사무소), 제5대 정태조 회장(헤쎄드 건축사사무소) 이·취임식 및 감사패 전달, 격려사, 축사가 이어졌다.

정태조 제5대 회장은 "건축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달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건축사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주신 큰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건축사회와 활발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군민의 안전한 건축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완주지역건축사회는 지속적인 성금 기부와 재능 나눔 등 지역 공헌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전북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통합심의 통과

정비사업 품질향상과 심의기간 단축에 기대...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2025년 제1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된 통합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280%로 완화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고도제한이 풀어짐에 따라 층수 제한도 해제했다.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반영해 기존 27개 동, 최대 17개 층으로 계획됐던 정비계획을 18개 동, 최대 29층으로 변경한 뒤 지난 1월 16일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31일 통합심의를 개최한 결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통합심의가 원안의결 됐다. 이는 기존에 약 8~9개월이 걸리던 건축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기간을 약 2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전주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도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심의 기간 단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통합심의를 통해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조합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매월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현장 행정을 병행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설계공모 디지털 플랫폼 '건축허브(Hub)' 도입

교육시설 설계공모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시설 설계공모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 설계공모 디지털 플랫폼인 '건축허브(Hub)'를 도입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구축된 건축허브는 2024년부터 설계공모 공고, 작품 접수, 심사위원 관리, 작품 심사 및 당선작 선정까지 건축설계 공모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전북교육청은 건축허브를 활용한 첫 사업으로 (가칭)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설계 공모를 추진했으며, 총 3개 응모작에 대한 심사 및 당선작 선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건축허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며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축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장필수 건축사 / 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9, 301호
  - 김준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루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86, 505호
- **변경(사무소명 및 소재지)**
  - 이두필 건축사 / (주)두산 건축사사무소 → (주)디에스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삼례로 71, 202호
  - 송택신 건축사 / (주)송택신 건축사사무소 → (주)에이앤이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2, 4층
- **결혼**
  - 소윤섭 건축사 / 상록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3월 22일(토)
  - 김상규 건축사 / 다움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5년 4월 5일(토)
- **부고**
  - 김성진 건축사 / 률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5년 3월 20일(목)
  - 노기완 건축사 / 새날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2025년 3월 25일(화)

담양군 만성리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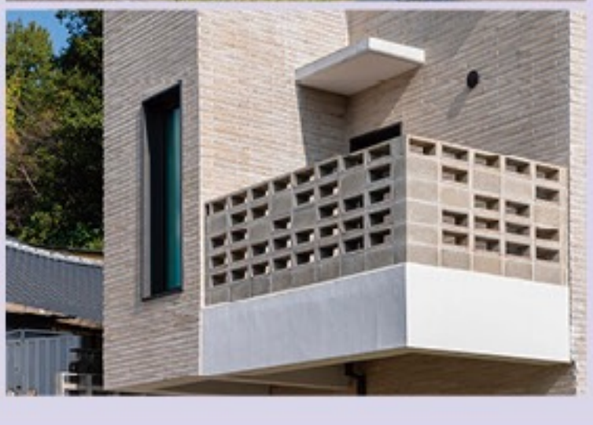
김준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
광주 서구 상무대로 721, 4층 401호
Tel. 062-385-0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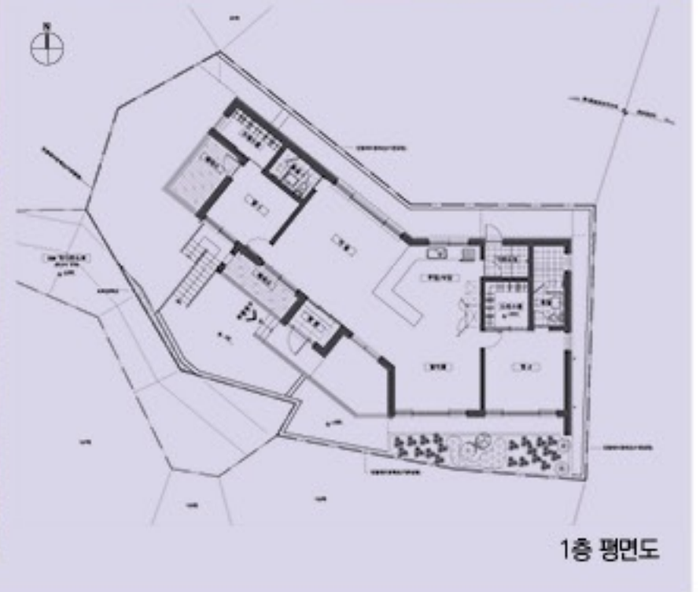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76 / 대지면적 : 332㎡ / 건축면적 : 139.63㎡ / 연면적 : 135.19㎡ / 규모 : 지상 1층
주용도 : 단독주택 / 건축사진 : 김성희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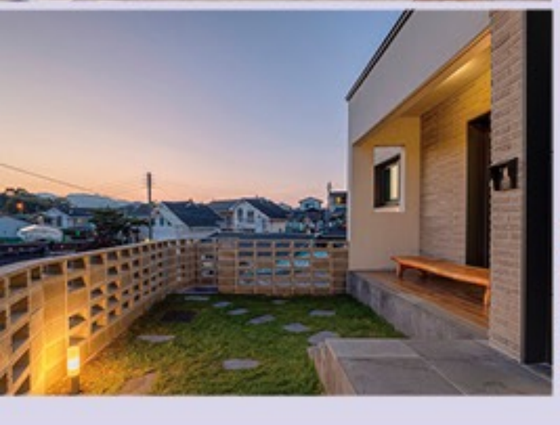
"만성리 주택은 담양에서 나고 자란 중년 부부의 탯자리에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는 프로젝트였다. 대지는 단차가 있고, 노후 주택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규모와 형태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구성하게 되었다.

흔히들 집은 집다워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집을 여행지의 분위기 좋은 숙소처럼 느껴지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시작하였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방과 거실은 박공지붕의 형태를 활용해서 높은 천정고의 넓고 시원한 공간으로 만들었고, 침실은 부부 각각의 취향에 맞춰 특색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창은 풍경을 담을 수 있는 틀이 되기도 한다. 실내의 곳곳에서 그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창호를 계획하여 시각적 확장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툇마루를 만들어 사람 좋아하는 건축주가 이웃과 소통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었다.

좋은 집은 설계자가 건축주와 오랜 소통으로 사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 같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59회 정기총회 성료

지난 3월 21일 JS웨딩컨벤션 2층에서...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지난달 21일 광주 서구 JS웨딩컨벤션홀 2층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광주광역시 교육청 이정선 교육감, 대한건축사협회 유준호 부회장,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길종일 회장을 비롯해 내·외빈,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과 회원 약 28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 1부 행사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유준호 부회장이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신재욱 본부장, 김삼현 건축사(길 건축사사무소), 양동희 사무처장(광주건축사회)에게 공로상 및 감사패를 수여하고 치하하였다.

또한 강필서 회장은 건축사회 및 광주건축도시문화 발전에 기여한 광주시 건축경관과 김일곤 건축행정팀장, 광산구 건축과 이남준 과장, 서구청 주택과 김정식 팀장, 동구청 건축과 양지혜 주무관, 남구청 건축과 최승규 주무관, 북구청 최윤서 주무관, 광주교육청 시설과 최인주 시설기획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총회 2부 본식에는 제1호의안 광주건축사회 회칙개정의 건과 제2호의안 2024년도 회계 수지결산(안), 제3호의안 2025년도 수지예산(안)은 만장일치로 원안의결되었으며, 제4호의안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에 단독 출마한 윤대두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를 박수로 신임 감사로 선출하였으며, 신임이사 7인과 대의원 12인도 선출했다. 이와 함께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제43차 정기총회와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제19차 정기총회도 함께 진행됐다.

강필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광주건축문화가 발전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모든 능력을 다하여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위하고 건축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에서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에게 공로패 수여

광주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

광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박종필 센터장)는 지난 4월 1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제정된 4월 10일 편의증진의 날에 기념하고 지역 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돼 행사취지 소개, 편의증진 유공자 표창, 감사패 전달,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편의증진 유공자 표창에 광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이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고, 광주광역시장 표창에는 광주건축사회 양동희 사무처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표창에는 양병범((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정영법((주)로운 건축사사무소)가 수여했다.

박종필 광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장애인·노인·임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8주년과 '제2회 편의증진의 날'을 기념하고 편의시설 인식개선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한국건축정책학회 이사로 광주건축사회 이창율, 정원 건축사 선임

지난 3월 19일 정기임원회의 및 정책 세미나에서...

(사진 = (좌)이창율 건축사 / (우)정원 건축사)

(사)한국건축정책학회는 지난 3월 19일 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의중 회장(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주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교육장(3층)에서 정기임원회의와 3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임원회의에서는 2025년도 학회 운영 방향과 회장단 명단을 의결하였으며, 광주건축사회 이창율 건축사, 정원 건축사가 각각 사업부회장, 사업이사로 임명되었다.

또한 정책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인허가 간소화방안'을 주제로 송복섭 교수(한빛대학교)의 사회자를 맡고 강연자로는 조상규 박사(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승연 교수(경북대학교), 강주석 차장(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 3인이 각 분야별 연구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사)한국건축정책학회는 국가건축전략, 건축정책, 건축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토론,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건축 및 관련산업의 선진화와 대국민 건축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무심는건축인,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식재행사 개최

지역주민 및 유치원생들과 함께 나무 50그루 심어...

(사진 = 나무심는건축인 제공)

지난달 26일 광주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나무심는건축인 박홍근 상임대표,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김종화 광주 북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주민 50여명과 함께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양산동 주민과 선정유치원생 20명이 함께 참여해 배롱나무 30그루와 황금회화나무 20그루를 심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박홍근 상임대표는 "우리의 슬로건인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올해 식재행사를 가졌다"며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민과 어린이가 함께 해 지속가능한 도시, 인본주의 건축을 추구하는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한편 나무심기행사는 지난 1999년 운천저수지를 시작으로 광주시청 신청사 인근, 광송간 도로변, 첨단공원 등에 나무를 심으며 지속가능한 건축문화운동을 펼쳐온 바 있다. 최근에는 분적산 근린공원, 첨단 1동 생태광장 등에 나무를 심어 오고 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시공 자문 실무전담팀 제도' 시행

공공건축물의 안전성 강화와 하자 예방을 위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공공건축물의 안전성 강화와 하자 예방을 위해 착공부터 점검할 수 있는 '시공 자문 실무전담팀' 제도를 시행한다.

시공 자문팀은 공공건축물 착공부터 설계변경 검증과 방수공사 등 주요 시공 단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설계 단계 협업이 진행되며 하자예방 및 안전관리, 디지털 기반 업무 공유 등이 강화된다.

공공건축물 시공을 할 때 예측이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 할 수 있도록 기획 용역 단계부터 설계완료 단계까지 민간전문가도 적극 활용한다.

매월 감독공무원의 안전 점검과 현장소장의 일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주요 골조공사의 영상 촬영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한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공 자문TF'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봄학술세미나 & 정기총회 개최

학문적 교류와 지회 회원 간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조창근)는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제1공학관 9층에서 '2025년 제1회 봄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젊은 건축인이 주는 시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봄학술세미나와 정기총회, 저녁 만찬으로 구성되었으며 1부 학술세미나는 박현구 송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배지윤 교수(호남대학교 건축학과)의 'From small to large', 윤주연 교수(호남대학교 건축학과)의 '높은 건축, 낮은 건축', 김선형 교수(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의 '기술의 과정, 과정의 형태' 등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2부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및 재무 보고와 함께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 등 학문적 교류와 지회 회원 간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조창근 회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는 건축인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지역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김명호 건축사 / 태영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103동 201호
  - 선민규 건축사 / 금강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매월2로 15번길 16, 103동 201호
  - 윤효연 건축사 / 윤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서하로233번길 5, 1층 101호
  - 박수희 건축사 / 수움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금부로95번길 24, 1층
  - 윤대두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 광주 서구 화개로 22, 2층
  - 김은자 건축사 / (주)아도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효천2로가길 15-1, 402호
- **결혼**
  - 김승모 건축사 / 예건 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2025년 3월 29일(토)
- **부고**
  - 강성진 건축사 / 무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5년 3월 28일(금)
  - 안찬호 건축사 / 으뜸 종합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5년 4월 3일(목)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벌점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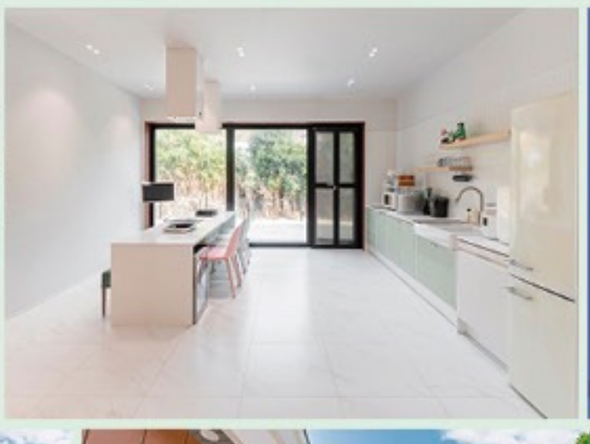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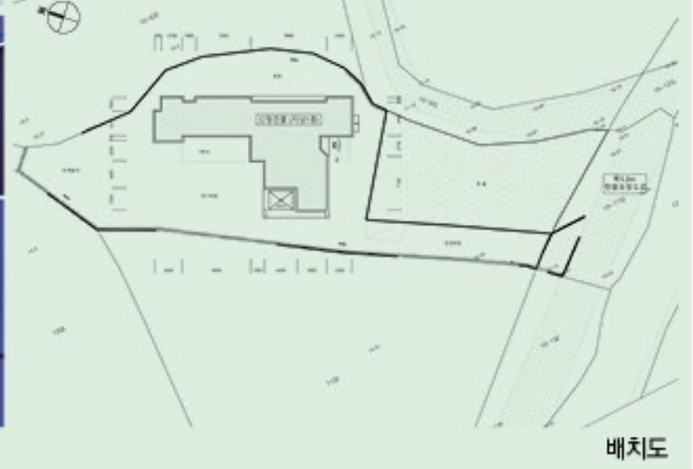
서촌리 키즈풀빌라 '소풍'

이 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제이플러스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17, 7층
Tel. 061-692-5011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서촌리 10 / 대지면적 : 990.00㎡ / 건축면적 : 192.56㎡ / 연면적 : 192.56㎡ / 건폐율 : 19.45 %
용적률 : 19.45 %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스타코, 고밀도목재패널, 리얼징크

"예쁜 두 딸을 가진 젊은 건축주 부부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이들 어릴 때 맘껏 뛰어놀게 해줄 주택을 항상 꿈꾸어왔다. 광양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여수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주말 주택 겸 민박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계획으로 광양보다는 여수에 대상지를 물색하였다. 하지만 관광으로 한참 들썩이던 여수에서 예산 범위 내의 부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몇 번의 검토 끝에 마침내 부지를 선정하고 건축주의 행복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건축주와 예쁜 두 딸의 소망을 담아 설계 시작에서 입주까지 즐겁게 소통하며 진행하였다. 문득 어려서 소풍가기 전날 설레임에 잠 못 이루던 기억이 떠오른다. 건축주를 비롯해 이곳에 올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은 설레임을 가지고 이곳 '소풍'에 와서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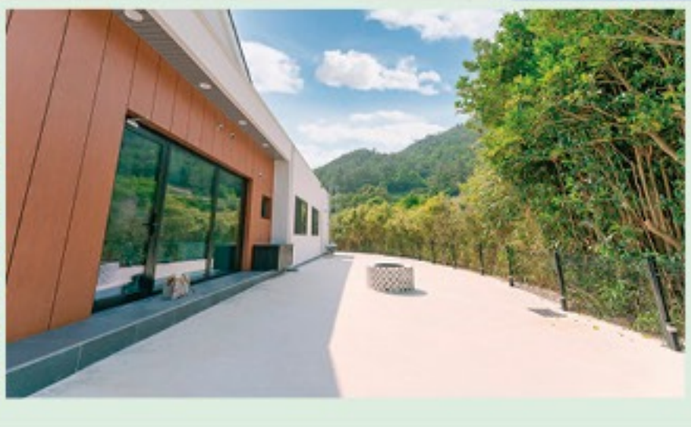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전라남도건축사회, 제59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감사에 변형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가인) 선출...

(사진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공)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달 1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홀에서 회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경일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건축사헌장 낭독, 개회사, 신입회원 인사소개, 공로패 수상, 부의안건 채택 및 심의로 진행됐다. 특히 부의안건 의결사항으로는 제1호의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결산서(안)승인의 건과 제2호의안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승인 되었고, 제3호의안 임원 선출의 건에서 신임이사는 배종수(한려 건축사사무소), 한삼섭(한국 건축사사무소), 박종혁((주)연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임 감사는 변형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가인)를 선출하였다.

제4호의안 대의원 선출의 건에는 국원식((주)건축사사무소 한신, 정운기((주)고려적산 건축사사무소), 정재성(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이학호((주)종합건축사사무소 초석), 조연준(건축사사무소 창조), 강성일(반석 건축사사무소), 김현종(로뎀나무 건축사사무소), 최영길(온남 건축사사무소), 박명재(명제 건축사사무소), 변형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가인) 총 10인을 선임하였다.

전라남도,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품작 접수...

전라남도는 아름다운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를 다음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

(사진 = 전라남도청 제공)

전남도는 접수 전까지 도민과 관계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2년 첫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 민간건축물 발굴에 힘쓴 전남도는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까지 포함해 공모 대상을 확대,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공공부문 각 5개 내외 작품을 시상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에서는 건립 시기에 상관없이 전남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부문은 전남도, 시군, 교육청 등이 시행하거나 조성한 공공건축물 중 준공된 지 5년 이내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청은 건축주(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자 모두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아름다운 건축문화 확산은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도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전남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전남도 건축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라남도,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워크숍 개최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논의...

(사진 = 전라남도청 제공)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나주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건축물과 품격있는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에서 활동 중인 공공건축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공건축 민간전문가는 공공건축사업의 예산 절감,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 기획부터 설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과 조정을 수행하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다.

이날 워크숍에선 박태홍 국가공공건축센터 연구원이 '공공건축 정책과 제도와 다양한 우수사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남 공공건축 발전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더 나은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최일 전남도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지역공간환경의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이 모여 전남형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말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공공건축사업에 대해 91건의 자문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경기대 건축학과 이영범 교수, 영암군 첫 총괄 건축가로 위촉

임기 2년간 영암군 건축 및 도시정책 자문...

(사진 = 영암군청 제공)

전남 영암군은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이영범 교수를 첫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총괄건축가는 지역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체계적 도시경관 조성을 목표로 영암군의 건축 및 도시정책 기본계획 자문, 공공건축 설계 검토와 조정 등을 담당하며.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특성을 반영해 건축 방향을 제시하고 영암군민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에도 나선다.

이 교수는 2021년~2025년 건축공간연구원장으로 일하는 등 건축과 도시계획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며 임기는 2년이다.

우승희 군수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공공건축과 도시정책을 깊이 살피는 영암형 총괄건축가 제도를 정착하고 영암군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와 광양지역건축사회,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에 대해...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건축민원상담실은 12개 읍면동을 상·하반기 각 1회씩 모두 24차례에 걸쳐 방문할 예정이며,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건축 인허가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상담 내용에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위반건축물 조치 및 양성화 절차 등이 포함된다.

상담 서비스는 매월 이장 회의가 있는 날 운영될 계획이다. 희망자는 정해진 날짜에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구체적인 상담일시를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광양시 허가과장은 "시는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광양지역 건축사들에게 제공하고, 복잡한 건축 행정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며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와 담당 직원들에게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문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 깜짝 방문

광양지역건축사회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학교를 연중 수시 접수 중

(사진 = 광양시청 제공)

광양시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건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광양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건축학교의 강사는 광양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이며, 이들이 1교시부터 2교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 1교시 수업은 건축에 대한 이해, 세계 및 우리나라 건축물 탐구, 세계 및 우리나라 건축가 탐구, 건축 직업 알아보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2교시는 다빈치 다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수업 현장을 찾은 정인화 광양시장은 "건축가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직업"이라며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어린이 건축학교에서 건축가에 대한 꿈을 키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는 지난 2일 다압초를 시작으로, 7일 광양마로초등학교와 광양동초등학교에서 실시됐으며, 오는 25일과 6월 13일 광양서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노대민 건축사 / 가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도원로 250, 2층
- **변경(근무처)**
  - 이영수 건축사 / 지엘 종합건축사사무소(주)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6-1, 4층
- **변경(소재지)**
  - 남경욱 건축사 / 새람 건축사사무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66, 1층
- **결혼**
  - 김래수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세기 / 자녀결혼 - 2025년 4월 5일(토)
- **부고**
  - 곽봉암 건축사 / 기찬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5년 3월 29일(토)

BS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DFI DEEP FOUNDATIONS INSTITUTE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대구 간송미술관, 리안갤러리, 삼성창조캠퍼스를 다녀와서...

나병훈 건축사
신세계 건축사사무소

봄이 기지개를 켜는 토요일 아침, 올해 두 번째 답사지인 대구광역시로 출발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창밖으로 봄비 내리는 지리산의 풍경을 보니 한 주간 쌓였던 피로도 함께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번 답사는 대구 지역의 예술적 건축물인 간송미술관, 리안갤러리, 대구삼성창조캠퍼스로 이어지는 여정이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반영한 대구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은 한국 고미술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외관에서부터 풍기는 고즈넉함이 우리를 반겼고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재료인 자연석과 나무를 사용해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 외벽이 돋보였다.

1. 전통과 현대의 조화

간송미술관은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해석으로 풀어낸 건축물이다. 건물의 외관은 한옥의 건축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한국의 고유한 미를 엿볼 수 있으며 자연과의 연계를 강조해 고풍스러우면서도 정교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 자연석과 나무, 벽돌,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미술관 외부 모습

2. 자연과의 연결

간송미술관은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에도 많은 신경을 쓴 건축물이며 특히 미술관 주변의 정원과의 연계가 돋보인다. 자연광을 적절히 활용하고 외부의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설계로 미술관 안팎이 잘 동화된 듯한 느낌을 주며, 이는 관람객에게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 천장에서 들어오는 자연광과 외부 정원과의 연계가 돋보이는 설계

3. 단순하지만 세련된 디자인

간송미술관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 미술관 내부는 전시를 위한 공간이 효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기 다른 작품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 있어, 관람객은 작품에 몰입하면서도 건축 자체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

4. 중앙홀의 개방감

간송미술관의 중앙홀은 복층 구조로 설계되어 개방감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중앙홀을 자유롭게 오가며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구조는 관람객에게 자유롭고 넓은 시야 및 휴식공간을 선사한다.

또한 중앙홀을 중심으로 각 층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시물의 이동 및 관람이 편리하다.

▲ 다양한 전시 공간과 작품에 대한 몰입이 가능한 내부 설계

▲ 전시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방감이 느껴지는 중앙홀

도심 내 쉼터 대구 삼성창조캠퍼스

대구 삼성창조캠퍼스는 제일모직 대구공장에 세워진 복합문화공간이자 대구의 산업 및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건축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공장 부지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을 결합해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손꼽힌다.

기존 건축물을 활용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었고, 공원 및 녹지 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 삼성상회를 복원한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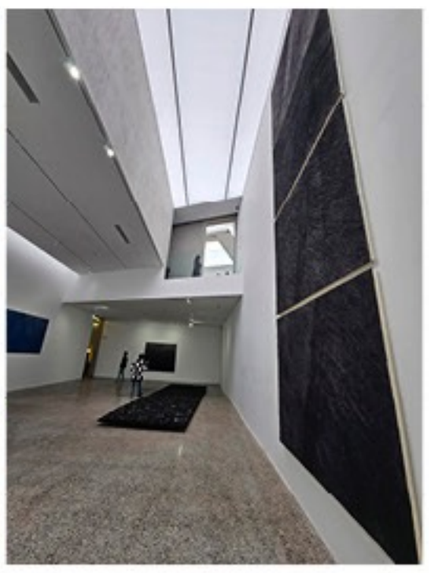
▲ 기숙사를 보존하여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예술의 아름다움을 품은 공간, 리안갤러리(2024년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

노후화된 건축물 사이에 자리 잡은 리안갤러리는 외부의 디자인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애쓴 흔적이 곳곳에 묻어났다. 주변의 낙후된 건물들과 어우러진 외부는 물결과 직선이 어우러진 알루미늄 패널로 마감되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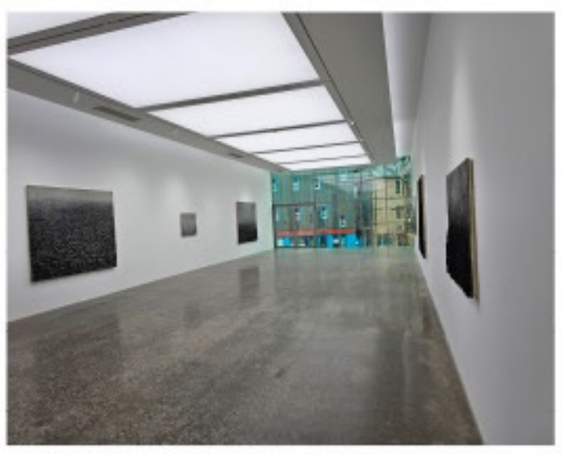
소규모 대지에 들어선 리안갤러리는 다양한 건축적인 요소를 건물 내·외부에 적용하였다.

▲ 깔끔하고 세련된 건물 외부



▲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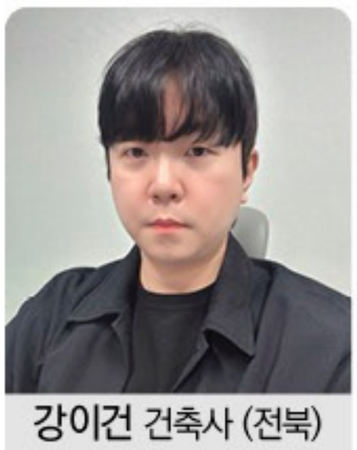
건물 내부는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각각의 공간에 전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층은 복층 구조의 전시관으로 대형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으며 2층은 커튼월로 작품을 반입하는 데 용이하고 작품에 몰입하다 잠시 주변 환경을 둘러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3층 및 4층에는 다양한 외부공간을 만들어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 미니멀리즘과 현대적 디자인을 반영한 외관과 내부 공간 구성

지속성과 진정성, 올림의 건축 철학을 말하다

- 올림 건축사사무소 강이건 건축사와의 만남



강이건 건축사 (전북)

건축문화사랑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합니다.

올림 건축사사무소 내부

제 소개부터 할께요. 안녕하세요. 개업 4년차인 건축사 강이건입니다. 많은 건축사 회원분들께 저를 소개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소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차가 되었더라구요.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지만,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시험을 준비하고 개소를 하다보니 시험준비기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4년 7월 첫 입사한 사무실에서 5년여간의 실무수련을 쌓으며 다방면의 프로젝트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 건축사자격시험에 집중하기 위해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회차 시험이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험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분위기여서 멘탈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믿어주는 가족들을 보며 의지를 다잡곤 했습니다. 2020년 6월에 미뤄졌던 시험이 치러진다는 공고문이 올라왔고, 마음을 다잡고 집중했습니다. 당시에는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정상 체온이 아니면 입실조차 불가했습니다. 또 시험응시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임해야 했기 때문에, 그 나름의 고충도 상당했습니다.

몇 번의 고배 끝에 2021년도 2회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이듬해 1월에 개업했습니다. 아직도 합격자 명단을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했던 일이 생생하네요. 12월 합격증을 받은 뒤 2개월간의 개소준비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소절차에 맞춰 행정업무, 자금마련, 사업장위치, 사무소명 정하기, 사무용품 구입 등 할 일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힘이 부칠 때마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힘써준 가족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또 개소 후 한달도 되지 않았던 때 아주 우연히 문의 오셨다가 계약하고 가셨던 건축주님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Q. 건축사사무소 이름명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올림 건축사사무소는 여러 의미로 해석되길 기대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올림, 건축물을 세우는 올림, 건축사가 자신의 작업 성과물을 건축주에게 드리는 올림 등이 그것입니다. 사실 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사무소명을 정했었는데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부가 안 되거나 답답할 때는 사무소명을 생각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과의 대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쉽고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며 건축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누구나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건축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재 건축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싶어, 한옥학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을 키우고 업역을 넓히는 동시에 사무소만의 특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아무래도 대가산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공공건축물 사업의 경우 설계대가 기준이 명확하지만 개인 건축주의 경우는 그 기준이 애매했습니다. 사업 1년차에는 다른 건축사사무소가 받는 금액을 밝히며 설계대가를 그보다 깍아달라는 요구를 상당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기획설계에 대해서는 대가기준도 없이 무료라는 인식이 강해 상당시간을 들여 검토 및 작성했음에도 그에 맞는 대가를 받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인터넷 정보들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설계비를 묻는 인터넷 질문 글에 카더라식 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글들이 기준이 되어 설계대가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협회에서는 최근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민간대가 기준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도가 자리잡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지 만약 디자인이나 설계도면이 구상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건축주 혹은 사업주와의 소통을 통해 파악한 선호 디자인 및 요구사항을 취향에 맞춰 설계에 녹여내려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막힐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이나 복도 등을 서성이며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부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고건축의 친환경소재를 통한 건축은 앞으로 나아갈 이상적인 건축물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시대에 발맞춰 정보를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와 연계시킴으로써 에너지절감을 실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의 공부도 해보려 합니다.

외적으로는 운동에도 취미를 갖을 계획입니다. 주로 앉아서 일을 하다보니 건강이 많이 약해진 것을 느끼는데, 이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참 힘든시기라고들 합니다. 저는 힘든 시기에 개업을 해서 원래가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적으로 부족한 능력을 쌓고 외적으로는 주변인과의 만남을 잦게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축사 모임이 활발해지고 빈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인 건축사사무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혼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법령이나 설계주안점들도 서로의 의견을 묻고 나눈다면 실수는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함께 고견 나눠요~ 감사합니다.

꿈푸른유치원 돌봄교실

전주시 덕진공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전주시 완산구 스톤빌리지 단독주택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의성어 의태어 건축

쿠마 켄고 / 안그라픽스 / 2017. 06. 05

『의성어 의태어 건축』은 일본의 건축가 쿠마 켄고의 독특한 건축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건축 프로젝트들을 나열하는 작품집이 아니다. 쿠마 켄고는 건축을 '언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며, 그 언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확하고 이성적인 건축 언어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의성어와 의태어라는 모호하고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건축을 설명하는데, 이는 기존의 건축 언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이기도 하다.

쿠마 켄고의 건축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모호함'을 embrace(수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북슬북슬', '첩첩첩첩', '팔랑팔랑'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공간과 건축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언어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형태나 정의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모호함 속에서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요소들을 끌어내려 한다. 쿠마 켄고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들을 건축에 접목시키면서, 건축이 그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사람과 환경이 어떻게 관계 맺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또한 책에서 소개된 건축물들은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슬북슬'한 음식점인 뎃장(てっちゃん)은 형태를 거의 없애고 물질과 색채만 남겨두어 공간 자체가 마치 소리나 감각을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까칠까칠한' 그물망, 흙 프로젝트는 건축이 자연과 얼마나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건축물들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경험하고 느끼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쿠마 켄고의 의도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점은 건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사진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도면이 배치되는 방식도, 건축물의 형태보다는 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경험을 강조하려는 쿠마 켄고의 의도를 반영한 것 같았다. 책 곳곳에 삽입된 의성어와 의태어가 손글씨로 직접 그려져 있어, 텍스트와 이미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인상적인 경험을 선사한 책이다.

쿠마 켄고의 철학을 이해하고 나니, 건축이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만들거나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감각적인 경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공간에서 사람과 건축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책이다. 쿠마 켄고가 말하는 '건축의 언어'를 통해, 건축이 단지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 그리고 감각이 얽힌 살아있는 경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내 마음은 바다

아침 햇살은 그리움속으로
애틋하게 파고들고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에
줄타기 하는 고깃배 하나

비릿한 바다향기
넘실대는 파도의 웃음소리
하늘을 나는 갈매기의 날개짓
시원한 바닷가를 그린다

하얀 모래밭을 거니는 연인
그들의 은밀한 속삭임도
파도소리에 섞이어 들려오는 시간

사랑으로 가득한 바닷가의 풍경
세상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삶의 기쁨으로
머언 지평선을 바라본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作 / 순천대학교

간월암

충청남도 서산시 / 2025년 2월 14일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2022~2023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수상작

◎ **시상목적** : 전남 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도시품격 향상 및 건축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함.
◎ **신청자격** : 도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 또는 관계자(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응모대상** : 도내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건축물(건립시기 제한 없음)

2022년 최우수상(민간 부문) '회덕현'

설계자 : 장진영 건축사 / (주)디딤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권승필 대표 / 두물문화재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698-5 / 대지면적 : 556.1㎡ / 건축면적 : 170.98㎡
연면적 : 170.98㎡ / 건폐율 : 30.75% / 용적률 : 30.75% /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1층

2022년 우수상(민간 부문) '인문학정원 귀소헌'

설계자 : 칸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건축주 직영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탑동길 56-1 / 대지면적 : 722㎡ / 건축면적 : 143.16㎡
연면적 : 168.99㎡ / 건폐율 : 19.83% / 용적률 : 23.41% /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2023년 우수상(민간 부문) '포트 앤 포트'

설계자 : 곽희수 건축사 / (주)이뎀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정종일 대표 / 동성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320-30 / 대지면적 : 9,936㎡ / 건축면적 : 1,907.62㎡
연면적 : 4,978.08㎡ / 건폐율 : 19.57% / 용적률 : 34.08% / 규모 : 지하 2층, 지상 4층

2024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수상작

◎ **시상목적** : 전남 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도시품격 향상 및 건축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함.
◎ **신청자격** : 도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 또는 관계자(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응모대상** : 공공 및 민간건축물 – (민간) 도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건립시기 제한없음)
– (공공) 공공기관이 시행·조성한 공공건축물, 공간환경 및 생활SOC 등 준공된 지 5년(공모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

2024년 최우수상(민간 부문) '스의집'

설계자 : 조웅희 건축사 / TCA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양영국

대지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1942-9 / 대지면적 : 942㎡ / 건축면적 : 261.06㎡
연면적 : 227.82㎡ / 건폐율 : 27.71% / 용적률 : 24.18%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아티스트 레지던스

2024년 최우수상(공공 부문) '순천시 신대도서관'

설계자 : 양병범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시공자 : 김창환 대표 / 도원건설(주)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71 / 대지면적 : 18,742㎡ / 건축면적 : 3,759.15㎡
연면적 : 5,681.71㎡ / 건폐율 : 20.06% / 용적률 : 26.89%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2024년 우수상(민간 부문) '경계의 집'

설계자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시공자 : 박영근(건축주 직영)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628-1 / 대지면적 : 296.20㎡ / 건축면적 : 147.30㎡
연면적 : 197.62㎡ / 건폐율 : 49.72% / 용적률 : 66.71% /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